

2023. 11. 15.(수)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3년 11월 15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	02-2133-5360
---------	-----	--------------

공정경제정책팀장	주재영	02-2133-5362
----------	-----	--------------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5쪽

관련 누리집	sftc.seoul.go.kr
--------	------------------

서울시, 연말까지 농수산물 30개 품목 가격 집중 점검...쟁바구니 물가안정 총력전

- ‘물가모니터요원’ 100여개 전통시장 직접 방문해 농수산물 가격 및 변화추이 밀착 조사
- 밥상 주요 품목 가격급등 시 낮은 가격 공급 위해 서울시 직접 나서
- 생활 속 물가부담 덜어주는 식당·이미용 등 ‘착한가격업소’ 확대, 가격·원산지 표시 점검
- 내년에는 물가 전반 종합관리 ‘전담요원’ 지정·운영 등 ‘서울형 상시 물가대응체계’ 가동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시민 밥상에 자주 오르는 30개 농수산물 등에 대한 밀착 점검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이어나간다. 60여 명의 시 소속 ‘물가 모니터요원’이 시내 100여개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품목별 가격을 조사하고, 시는 물가 모니터 결과와 온라인 가격정보 등을 종합하여 가격 변화 추이를 분석, 물가안정대책 수립에 반영한다.

- 점검품목은 상추, 시금치, 배 등 농산물 24개와 조개, 굴 등 수산물 6개 총 30개 품목으로 중앙정부의 집중관리 품목(35개)과 겹치지 않은 품목을 선정, 밥상머리 물가 품목을 폭넓게 관리할 계획이다.

□ 이번 서울시의 물가 긴급점검은 정부의 특별물가 안정 정책 추진에 맞춰 물가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가격모니터 결과 가격 급등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합동 단속, 집중관리대상 추가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정경제담당관 : 농수산물 가격모니터링 및 전통시장 가격 현장조사
- 농수산유통담당관 : 가락농수산물 시장 도매 가격동향 모니터링
- 식품정책과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 자치구 : 가격표시제 점검

<밥상 주요 품목 가격급등 시 산지·도소매처와 시(市)가 직접 협력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

□ 가격 점검 외에도 폭우·폭염 등 기상 이변에 따른 주요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한 경우에는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서 민간유통 업체 등과 협력해 시중보다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 품목은 시민 밥상에 자주 오르는 상추, 시금치 등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 이와 관련 시는 내년도 ‘농산물 수급안정 관련 예산’ 1억원을 시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 시는 이미 지난 3월 대파 20톤, 8월 오이 3만개를 농수산식품공사·롯데마트 등과 협력해 시중보다 각각 38%, 36% 저렴하게 공급한 바 있다.

<’23년 농산물 공급 민관협력사업 추진실적>

- ▶ 기상이변에 의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민관협업을 통한 할인판매 행사 2회 추진
 - (1차 : ’23. 3. 23 ~ 29) 대파 20톤 38% 할인(59백만원, 2,990원/kg)
 - (2차 : ’23. 8. 10 ~ 12) 오이 3만개 36% 할인(22.5백만원, 750원/개)

<생활 속 물가부담 덜어주는 식당·이미용 등 ‘착한가격업소’ 확대, 가격·원산지 표시 점검>

- 이외에도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등 ‘착한가격업소’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고 시민 이용을 높일 수 있는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현재 서울시내 ‘착한가격업소’는 총 988개(’23년 10월). 업주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하면 현장 실사(자치구)를 통해 가격·위생·공공성 등을 꼼꼼히 평가한 후 지정하는 방식이다.
 - ※ 착한가격업소 현황: 한식(498개), 중식(54개), 경양식(28개), 기타외식업(66개), 세탁(50개), 이미용(263개), 기타(29개)
-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업체별로 필요한 물품 및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인증마크 부착 및 서울시 누리집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해준다.
- 마지막으로 소매·대규모 점포와 명동 등 가격표시 의무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한 점검도 자치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당거래 행위를 막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에는 물가 전반 종합관리 ‘전담요원’ 지정·운영 등 ‘서울형 상시 물가대응체계’ 가동>

- 내년부터는 물가상승 신호에 대한 즉각적 대응을 위해 ‘서울형 상시 물가대응 체계’를 구축해 비상시 긴급·일시적 대응을 넘어 상시 대비 체계를 구축·가동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 모니터링 예정인 30개 품목에 대한 점검은 계속 이어나가고 필요시엔 점검 품목도 확대한다. 또한 시민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물가전담요원’도 지정·운영해 물가상승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승

신호가 감지되면 즉각적인 초기 진화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장바구니 물가는 시민들의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물가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선정기준

- 통계청 관리 신선식품 55개 중, 중점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30개 품목

구분	신선식품지수 품목
농산물 24종	상추, 시금치, 양배추, 미나리, 깻잎, 부추, 열무, 당근, 감자, 고구마, 도라지, 콩나물, 버섯, 오이, 풋고추, 호박, 가지, 브로콜리, 파프리카, 배, 포도, 감, 귤, 딸기
수산물 6종	게, 굴, 조개, 전복, 새우, 낙지

※ 제외품목 : 농림축산부(28종), 해양수산부(7종) 관리품목 제외